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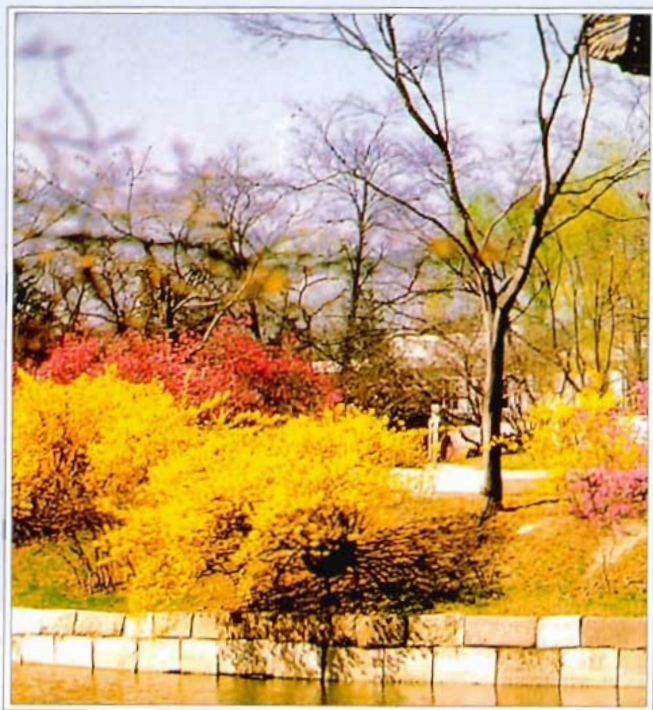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1999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신명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3

1999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신명기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4.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7.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말씀으로 대비하는 남은 열 달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낙관적인 입장에서 아직 열 달이 남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남은 열 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시간들이라면 그 분들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간들은 그다지 밝고 명랑한 시간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경기회복과 낙관적인 미래를 홍보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염려해야할 심각한 문제들 중 상당부분은 여전히 감추어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집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상적인 생활에 파묻혀 있다가 불현 듯 재앙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안일함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한번 무장합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안에 진정한 미래가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는 충현의 성도들 각 가정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소망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1999년 3월

위임목사 김성관

충현의 만나

1999년 3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신명기 서론

모세오경 중 마지막책인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3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율법서요 또한 교육서이다. 시내산 언약의 주역들인 구세대가 그들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중에서 다 멸망을 받은 후에 아직도 율법에 익숙지 않은 신세대이 가나안 입성의 주역으로 떠 오름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서 나타난 여호와와의 율법을 반복하고 확장하며, 불순종함으로 멸망한 구세대의 행위를 답습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하나님 백성들의 요건을 들어 권면하고 있다.

본서가 신명기라고 불리우게 된 데에는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본문 17:18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율법의 반복”, 즉 “계명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을 함축해서 신명기라고 부른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세 오경의 종합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데, 무엇보다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기 위함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은혜)에서 비롯되었는가를 가르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명기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율법을 재교육하기 위해 확대 적용 시킨 것

이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사랑과 충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 언약의 갱신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새 언약”에 관한 예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리는 모세의 설교 가운데서 새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인격을 여러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18장 15절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강생하신(요 1:14)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여 주고 있다.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모세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으로(33:4, 5) 또한 선지자로(34:10-12) 제사장으로(출 32:31-35)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신약에 인용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 신명기를 즐겨 인용했다. 특히 두드러지게는 예수께서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세번씩이나(6:13, 6:16, 8:3) 인용하셨다.

내용 흐름

1. 첫번째 설교 - 과거 역사의 회상(1:1-4:43)

1) 머리말 / 1:1-5

2) 40년 광야 생활의 회고 / 1:6-4:43

2. 두번째 설교 - 율법의 재교육(4:44-26:19)

1)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 4:44-11:32

2) 예배와 성결에 관한 법 / 12:1-26:19

3. 세번째 설교 - 경고와 예언(27:1-34:12)

1) 가나안에서 준수할 규례들 / 27:1-28:68

2) 모압평지에서 맺은 언약 / 29:1-30:20

3) 모세 최후의 행적 / 31:1-34:12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13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14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17절).

둘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만민 중에서 나를 택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15절).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19절), 겨우 칠십인 밖에 되지 않은 한 가족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부요의 하나님이십니다(22절).

따라서, 설령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너무나 마땅한 이유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매사에 하나님만 인정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어제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행복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가?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 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행복의 내용에 대하여 '강성하여지고 약속받은 것을 얻음' (8절), '장수함' (9,21절), '농사가 잘 됨' (13-14절), '대적하는 자들이 물러감' (23,25절), '소유가 많아짐' (24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진짜행복의 영적측면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축복들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임시적인가 하는 사실을 당장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요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의 전부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행복의 행복', '행복의 전부'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감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와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는 것' (12절)입니다. 우리들의 객관적인 형편이 어떠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자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명기의 전체내용은 '복과 저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 경계선이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단순하고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복이요, 그것에서 돌이켜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머리를 숙이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복을 떠나 저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이방의 우상들을 음란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토록 단순하고 쉬운 것을 지킬 수 없었을까요?

우리모두는 이미 우리 자신 안에서 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으로 대표되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기 보다는 자신 안에서 설명되고 이해되고 설득되는 것에만 몸을 던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판단을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까마득이 잊은채, 자신의 잘난 머리와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는 '나는 죽었고, 그는 살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복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포기됨으로 주님이 사실 때, 복된 날이 시작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12 장 전반부는 제사의 장소와 모범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전에 먼저 '우상을 제할 것'을 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정결한 제사'로 대표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을 씻고 제물이 준비되었고, 제사장소가 합당하고, 제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손에 우상이 들려있는 한, 그 모든 제사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가중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거룩한 음성으로 선포되는 메시지와 찬양, 준비된 헌금과 여러 가지 순서들을 통해 흠없는 예배가 드러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것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쉽게 '그것'을 선택하고 마는 그런 우상이 나에게 없는 겁니까? 돈이나, 자식, 명예와 같은 흔하디 흔한 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존심과 씻어지지 않는 미움, 고집, 버려지지 않는 나쁜 습관이나 버릇 등도 은밀한 우상이 되곤 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우상들이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와 예배하는 삶을 위해 그것들을 어떻게 제할 것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는 우상의 제거로부터 시작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안에 우상을 멀리 하게 하소서. ② 중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하 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맞이할 생활에 대하여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맞닥뜨려야 할 여러 가지 미혹과 도전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중 대표적인 미혹들 중에는 '자식을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 (12:31)와 하나님을 떠나 매력있어 보이는 '새로운 신을 섬겨보자는 미혹' (13: 6-7), 그리고 '거짓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미혹' (13:1-3)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특히 거짓선지자의 미혹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그들은 자기들의 말에대한 증거로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13:2).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이 있는 이래로 이 진정한 신앙의 주변을 떠도는 가증한 거짓예언들과 사이버 신앙들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이단들 외에 장막성전이니, 디아스포라 선교회니, 안상홍중인회니 하는 신흥이단들이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교회를 싸잡아 비난함으로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배타적 선언을 거침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행하는 것이 결길로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하 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명령들 중 가장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만한 짐승(4-6절), 먹지못할 짐승(7-8절),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9절), 먹지못할 물고기(10절), 그리고 먹을 만한 새(11절)와 먹지못할 새(12-19절) 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규명해 내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어떤 종파에서는 이 규정에 따른 음식법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세세한 규정을 주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서조차 이방인들과 엄격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함으로,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선민임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구별됨'이야말로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렘 5:14).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섞이는 편함보다 구별되는 불편함으로 세상을 더 잘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별되는 불편함이 세상을 더 잘 바꿀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이 스라엘은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하나님앞에 드려야 했으나, 실제로는 세 종류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먼저, 백성 중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지파의 생계를 위해 드리는 십일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한 절기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까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며 성도들간에 교통을 이루고 먹기 위한 십일조가 있었습니다. 이 십일조는 가족들 및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감사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를 제2의 십일조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2-26절이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3의 십일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28-29절). 이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세번째 해가 되는 때, 곧 제3년과 제 6년째에 제2의 십일조 대신에 시행하던 것으로, 이 십일조는 감사 축제를 베푸는 대신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을 위해 구제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백성의 물질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이같은 섬세한 배려와 관심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을 거저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오늘도 나와 내 가족이 '나눔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나눔을 위한 통로'로 내어드립시다.

▶ 기도 제목 / ①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 장의 서두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1-18절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6절은 안식년에 한해서만이라도 채무의 이행을 일시 면제해 줄 것을, 7-11절은 굳이 안식년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계속할 것을, 그리고 12-18절은 원래 히브리인끼리는 서로 노예 삼을 수 없으나 채무 대신 임시로 노예된 자를 안식년에는 필히 해방시켜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구원을 얻게 한 자가 누구이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서로가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먼 옛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심판받을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탕감받은 자라면 이 규례가 과연 옛적 말씀으로만 남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이해타산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한 영혼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은 육축의 초태생이 처음난 아들과 같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유월절 밤에 육축까지도 이스라엘의 것으로 구별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속됨은 우리 영혼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 존재와 모든 소유까지가 다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소유에는 점과 흠이 없습니까?

구속사를 통해 볼 때 이 규례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성을 예시해 줍니다. 우양의 악질이나 흠은 길고 촘촘한 털을 속속들이 살핀다해도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실만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우리 가족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과 증진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제물이십니다. 그분만이 합당하십니다.

흠있는 것들은 구별됨 없이 성중에서 먹을 것이지만 그 피는 하나님의 것으로 물과 같이 흘려 버려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피 흘림은 죄사함을 상징합니다. 또 물처럼 흘려버린다는 것은 깨끗케하는 제의중 하나인 흐르는 물(민 19:13)을 말함이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나게 합니다. 흠없는 주님의 피로 구속된 우리의 모든 삶과 소유가 깨끗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흠없는 삶은 나의 모든 존재와 소유를 포함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모든 생활을 성결케 하여 주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하 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를 멀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칠칠절은 과거의 노예시절을 기억하면서 현재에 받고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상기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없던 시절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광야의 방랑생활을 기억하는 것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돌보시고 이끄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속하심과, 삶의 곳곳에서 받고 있는 은혜와, 언제나 날 이끄시는 손길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때, 삶의 진실을 깨닫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항상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이 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그에게 우상숭배자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있는냐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나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을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또는 이웃과 친구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들은 그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짓는 환경 가운데 동참하기를 바라는 권유를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딱 한 번만 하자.” “이번에는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라고 말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습니까. 지도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십시오. 끊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의 영향력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라.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도록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새 땅에 거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으므로 이 규칙들을 주신 것입니다.

왕이 될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여야만 합니다(15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친히 기름부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들, 즉 말이나 병거 등과 같은 것으로써 국력을 쌓아서 안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므로 이스라엘이 교만해질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하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왕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는 안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볼 수 있으며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재물을 탐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 즉 나눔의 원칙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평생동안 곁에 두고 묵상함으로써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정치 속에 묻어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지도자들을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이 이스라엘 지파 중 레위 지파는 유독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에겐 눈에 보이는 땅이 그들의 분깃이었지만 그들에겐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 사 람이라면 누구나 여호와와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었고 중앙 성소에 있는 지 지방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었지만 여호와와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가장 풍요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면 아무것도 없었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 레위 지파를 구별시킨 하나님은 이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 열방에 대한 레위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의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용납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혹자는 이를 잔인하다거나 잔혹하다라고 말 하기도 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당연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 제한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분깃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삶에 전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하 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주술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미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 줄 참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시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세 사후부터 예수께서 오시기까지의 선지자 제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참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지 여부, 말씀의 성취와 증험 여부 등을 열거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를 구별하는 일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참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날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한 말씀의 전달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언제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들을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예외 없이 새로운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3:20). 그러나 본문은 천국 시민의 삶이 이상적인 삶이 아닌 현실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땅은 분명 아름다운 땅이지만) 죄인들이 살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땅은 분명 피로 얼룩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종류의 범죄자 곧 살인자(1-13절), 도둑(14절), 거짓 증인(15-21절)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의 복수가 흔한 당시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희생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피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도피성 세 군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세우도록 배려하십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피난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가정 기도 제목 /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호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에 직면하여 우리 자신의 힘이나 대적들의 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군사적 대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완전히 열세인 데다가 장비와 군사적 기술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1절). 그러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에서 가장 큰 군대와 대결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1절). 그들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적군의 맹렬한 공격보다도 더 치명적인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치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3절). 따라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승리가 쟁취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힘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장미빛으로 가득한 여정이 아니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본문과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때 제대로 반응하는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서로 다른 고통에 처한 다섯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피살자(1-9절), 포로된 여자(10-14절), 불우한 아들(15-17절), 타락한 아들(18-21절), 그리고 처형당한 범인(22-23절)이 바로 그들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처한 서로 다른 형태의 개인적 고뇌와 그런 슬픔을 당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받아야 할 도움과 관련된 몇몇 기본 지시들이 함께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3절)이 정결 의식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속죄를 위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3절) 암송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며(6절) 이 죄에 대한 결백을 고백합니다(7절). 일단 죄를 고백하고 나면 즉시 사함을 받습니다(8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여기에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처리하실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죄악과 고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 놓고 고백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우리는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벨기에 법률 제정자는 미국 정치가들이 간통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고 “유럽에서는 혼외정사가 건강의 신호요 일종의 위업으로 간주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성접촉으로 전염되는 치명적인 질병들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증가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성적 허용을 건강한 행동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본문(13-30절)은 육체적인 성관계가 결혼 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 내에서 높은 도덕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개인적, 공동체적 성도덕에 관한 네 가지 규정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첫째(13-21절)는, 자기 아내가 결혼할 때 처녀라고 속였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남편의 불평을 가정합니다. 여기서는 혼전 관계나 혼외 정사를 정죄합니다. 둘째(22절)는 간음(결혼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정죄합니다. 셋째(23-29절)는 강간을 정죄합니다. 근친상간(30절)을 정죄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결혼 관계 내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매우 가치 있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목적으로 오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죄악이 됩니다.

성의 신성함을 회복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오염된 성이 지배하는 세속의 늪에서 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인도의 주요 유적지를 가보면 반드시 일정한 지점에 '신발을 벗으시오'라고 적힌 풋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유적지의 숭엄함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관광객의 정결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는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1-8절). 당시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를 위해 거세당한 사람이나(1절) 가나안의 신전 창기의 아들이나 딸과 같은 사생자들(2절)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두 계층의 사람은 이교 신앙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혼합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거룩한 백성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역시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3절).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까(4절). 모압 사람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하려 했습니다(4절). 하지만,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에돔 사람은 피를 나눈 형제간이며, 애굽 사람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맞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7절). 그러므로 이들의 삼 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8절).

예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정결함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정결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은 이혼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1-4). 모세 율법이 이혼을 허락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학자들간에 논란이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대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결혼 관계의 파괴를 매우 심각한 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서 이혼은 조건적 허용이지 선언적 명령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거나 두 번째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거나 또는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와 같이, 뚜렷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1, 3절)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보고 이혼을 허용했던 것이지 원칙적으로 이혼은 불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9:8). 창조 언약에 나타난 가정 제도는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하도록 결코 명하지 않았습니다(창 2:24).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그 이혼법을 곡해하여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마 5:31)는 선언적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혼이 우리 생활의 일부처럼 자연스레 자리잡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한 5쌍 중 1쌍은 이혼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혼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 결혼의 신성함을 회복합시다.

‘부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회복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결혼의 신성함을 회복시켜 주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가정 기도 제목 /

오 늘 본문은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상거래에 대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고대 가나안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거래를 할 경우, 일정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머니에 돌로 만든 추를 넣어 가지고 다니거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추나 되를 이용하여 물건을 살 때는 그 중 무거운 추나 되를 이용하고 팔 때는 가벼운 추나 작은 되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나안 땅의 부패함과 가증함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세우시려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가나안의 죄악을 멸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지 아니한 추나 되는 아예 보관하지 말도록 명령하십니다. 당장 사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사용하고 싶은 유혹의 여지까지도 남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5:22)'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자들입니다.

유혹받을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삶 속에 공평과 정의가 가득하게 하소서. ② 김영내 선교사(수단)담당하는 학교,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은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감동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땅에서... 만물을' 취하여 그것을 광주리에 담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는 여호와와의 관대하심을 인정하며(14절)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5-9절). 그들은 또한 여호와와의 유일하심(10절)을 기억하며 여호와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재 확인했습니다(11-19절).

예배자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복을 세어가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불우한 이웃들과 관대하게 나누어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11절).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라는 복이 임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19절).

여러분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사가 불우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합시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경험케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이 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속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중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데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며 '화목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거대한 지리적 설정을 통해 하나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그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는다면 자신에게 저주를 선고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결단하여 어느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여 순종하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본 문 말씀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복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통하는 복입니다(3-6절). 이 복을 받은 자들은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며(7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확실함으로 온 세계 만민이 두려워 할 것입니다(10절).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없는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13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9절). 그러나 이러한 가슴 실례이는 복을 받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순종이 그것입니다(1-2, 9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여 온전한 길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오늘 시작 한다면 이는 이미 복된 길로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 귀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본 문에는 읽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저주들이 장장 54절에 걸쳐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본문의 재난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은 죽음과 저주 대신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가해지는 이유를 본문은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45절). 둘째로,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지 않을 때 (46-47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 때에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58절).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있는 복과 저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저주를 택하게 됩니다.

이제 복과 저주의 선택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하느냐 불순종 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 드려 복된 길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심히 원하고 계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소서.

이 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4절)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의 위험은 가나안 땅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 언약을 어길 것이며, 자신이 내리겠다고 하신 진노를 초래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28절). 그리고 그 분은 자비로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규정을 미리 만드셨습니다. 참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 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이 스라엘이 범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용서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용서를 받으려면 참회해야 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여호와께로 돌아와...말씀을 순종하면”(2절). ‘돌아오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진정한 회개의 행동,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회복된 삶에 수많은 복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5-6절).

참 회개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가까워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14절). 우리의 팔을 내밀어 성경책을 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쓰여진 말씀 이외에 다른 방법에 치중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항상 복된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길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모세는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숨기지 않았습다(2절). 모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후계자로 위임하는 귀한 일을 합니다(3, 6절). 그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지게 될 지도자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3절). 이는 지도력이 자신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가장 평온하고 효과있게 넘어가게 하려는 귀한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 가야할 가나안 땅은 낯선 곳이며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함께 하였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목이 끝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인간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가감하지 않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격려뿐 아니라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충현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31:19) 그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에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래의 첫부분은 32:1-18까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교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 땅은 내입의 말을 들을 지어다”(1절)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증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마치 눈동자와 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3-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 하기는 커녕 도리어 다른신들을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15-18절). 이런 이스라엘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둘째 부분인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입니다(19-47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배역으로 갚은 이스라엘에게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명령을 거스린 자녀가 매를 자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회개 하기를 기다리시던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며, 심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 줍니다(19-25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심판 가운데 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진노 중에 서라도 사랑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들을 회복 시키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26-43절).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하 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그에게 이스라엘을 축복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적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선포에는 시내산 언약이 그 서언으로 등장합니다(1-5절). 왜냐하면 축복은 언약의 기초 위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2지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 하면서 각 지파별로 축복을 진행합니다(6-25절). 먼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지파들을 위해(6-11절), 그리고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난 지파를 위해(12-17절), 그리고 야곱의 축복에서 배제 되었던(창 49:1-27) 잇사갈과 스블론 지파를 위해서도(18, 19절), 야곱과 실바에게서 난 지파를 위해서, 야곱과 빌하에게서 난 지파를 위해서도(20-25절) 일일이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에서는 "경건한자"(8절)로서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9절)로서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10절),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는자"로서(10절) 축복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대적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며(28, 29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 하기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것입니다.

우리 삶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주어집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소서. ② 남북이 피 흘림없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고 가나안 일경을 다 눈으로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열조의 품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비록 온땅 위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자(민 12:3)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불의함(민 20:1-13)을 나타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까지 그 눈이 쇠하지도 않았고, 그 기력이 다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아마도 신약의 바울과 같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리이다”(딤후 4:7, 8)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신구약을 통틀어서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후에 모세만한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10절). 그러나 모세는 신명기 18:15에서 하나님께서 후일에 일으키실 “나 같은 선지자”를 예언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아버지 집에서 사환으로 수고한 모세를 능가하는 아버지 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 하십니다.

우리 맘속에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② 3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4월 한 달 동안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서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하여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어서 그 후 30년 간의 기독교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소문이 로마세계 전반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구원역사의 진실성을 변증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스스로가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이방제국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자세히 주목하여 기록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선교의 동역자로 많은 사역들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내용

- 1:1-6:7 교회의 탄생
- 6:8-9:31 박해를 넘어서 확장되어가는 교회
- 9:32-12:24 베드로의 사역과 이방인들의 교회 가입
- 12:25-16:5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여행 및 사도들의 결의
- 16:6-19:20 복음이 아가야의 서부와 동부에 심겨짐
- 19:21-28:31 바울의 로마방문 계획과 성취

제 1 과

사도행전(1)

선택의 특권과 책임

찬 송 / 431장

읽을 말씀 / 1:1-6:7

공부할 말씀 / 6:1-7

먼저 읽기

오순절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교회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 모인 자들의 기도와 순종 가운데 왕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의 입에서 솟아나는 권위있는 말씀의 선포와 역사,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헌신적인 사랑과 나눔은 모든 이들을 주목시키기에 충분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두려움을 일으킬만한 경외스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사단의 격렬한 반대와 방해가 가장 집요하게 퍼부어졌습니다. 유대교 지도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박해하면서 교회지도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실패하자, 유혹에 넘어간 부부를 이용하여 교회내적 부패를 일으켜 교회의 영적 순결성을 더럽히고자 했습니다(5:1-11). 그러나 그 계략도 교회의 단호한 대처에 직면하여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교회 내부에 편당을 조장하여 내분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일에 몰두하게 만듦으로 교회의

영성을 메마르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합시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 1)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던 교회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1절)
- 2) 그 문제앞에 직면한 사도들은 진짜 염려해야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판단했습니까?(2절)
- 3) 사도들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곧, '구제'로 대표되는 교회의 행정적인 사역을 위해 일곱 명의 일꾼을 선출하되, 그 선택을 온 형제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일꾼선발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3절)
- 4) 온 무리가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운 일곱명의 일꾼들은 누구입니까?(5절)

5) 이러한 선한 결정의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7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교회는 성도들 자신의 연약성으로 인해, 또는 사단의 체계로 인해 자주 넘어야 할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발행한 문제 자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본질, 혹은 그 문제가 가져다 줄 영적 의미를 빨리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최소단위라고 볼 수 있는 당신의 구역에는 어떤 문제가 발견됩니까? 구역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어느 공동체이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섬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꾼선발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선출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기도없이, 진실한 마음이 없이, 때로는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와 이해관계에 의해서 대신 일할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일꾼을 뽑을 때, 개인적으로건 구역에서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제 2 과

사도행전(2)

든든히 서가는 교회

찬 송 / 245장

읽을 말씀 / 6:8-9:31

공부할 말씀 / 9:26-31

먼저 읽기

사도행전의 기록 중 최대의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울의 회심'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초기의 역사에는 사울의 회심 외에도 여러 굵직 굵직한 사건들이 준비하지만, 사울의 회심이 가져온 파장보다 더 한 것은 없습니다. 그토록 극적으로, 전격적으로 회심한 한 사람의 변화는 초대교회에 결정적인 획을 그었습니다. 그가 회심하자 전에 그의 편이었던 자들은 이제 그를 죽이고자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기의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완전한 헌신을 지속합니다. 이러한 일환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전체와 진실한 협력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 1) 사울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무엇입니까?(26절 상반절)

- 2)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의 방문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26절 하반절)

- 3) 이 때, 사울과 예루살렘의 제자들 사이에서 바나바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했습니까?(27절)

- 4) 일단 고비를 넘긴 사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어떻게 지냈습니까?(29절)

- 5) 위협적인 적대자였던 사울의 회심 및 예루살렘 제자들과의 화해가 이어지자 교회는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31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를 충심으로 변호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 해나가는 성도들 대다수는 '거칠게 반대하던 사람이 돌아서면 교회를 세우는 가장 큰 헌신자가 된다'는 경험적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갓 회심하여 신앙이 좀 거친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의외로 냉담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제자들처럼, 거칠은 초신자들을 경계하거나, 거의 무관심하게 대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바나바처럼 그들의 영적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용납하고 격려하는 편입니까?

2) 복음에 대한 완악한 저항자였던 사울을 순전한 헌신자로 바꾸신 예수님은 이제 복음의 능력과 함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전체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누가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을 '평안', '힘'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함),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성장' (숫적부흥), '경건함' (주를 두려워함)이라는 다섯가지 특징으로 묘사합니다. 이 특징들에 비추어 내가 속한 구역과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힘써야 하겠습니까?

제 3 과

사도행전(3)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

찬 송 / 362장

읽을 말씀 / 9:32-12:24

공부할 말씀 / 11:1-18

먼저 읽기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는 우상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이방인 집에 당연히 붙어 다니는 악한 귀신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유대인은 그 귀신들의 악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넬료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일지는 모르나,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그는 이러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과 강권적인 명령이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고, 그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

나눔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10:34-35).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발생했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 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1절)

- 2) 그 소식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2-3절)

- 3) 베드로는 형제들의 격한 반응에 대하여, 그간 있었던 모든 정황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4-16절). 그 모든 정황에 대한 설명 후, 베드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17절)

- 4) 처음에 힐난하던 형제들의 마지막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18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9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교인이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식, 무의식적으로 그 존재를 무시하고 버려둔 개인이나 집단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현상을 고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2) 유대적 편견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분을 품었던 형제들은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고 호소하는 베드로의 말을 들은 후, 곧바로 비난하던 입을 닫고 하나님이 이루신 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경우, 때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졌는데도, 나의 자존심이나 고집을 내세워 여전히 마음으로 잘못을 굽히지 않는 일은 없습니까?

제 4 과

사도행전(4)

성숙한 중재

찬 송 / 372장

읽을 말씀 / 12:25-16:5

공부할 말씀 / 15:13-29

먼저 읽기

이방인들이 교회로 속속 가입한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는 좋은 소식이었으나, 다른 지역들에는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는 유대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기독교가 이방세계로 번져 나가는 일을 감독할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나, 결집을 수 없이 번져가는 이방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기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교회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매우 불충분한 요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도덕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이방인들로 인해 교회의 윤리적인 수준도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할 가장 안전한 장치는 무엇일까요?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가지 방법, 곧 모든 이방인 개종자들도 예외없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놓고 그들

과 매우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이 문제는 교회의 최고 책임자들 수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베드로와 야고보가 차례로 나서서 공동체적 입장정리를 시작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 1) 베드로의 변론에 이어 이제는 야고보가 중재자로 나섭니다. 야고보가 합당한 문제해결의 근거로 인용한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16-18절)
- 2)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야고보는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가 내놓는 자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19-20절)
- 3) 야고보가 그러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21절)
- 4)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는 가결된 내용을 편지에 써서 유다와 실라 편에 보내 이방인 형제들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의견결정의 주체를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28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 1)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경험적 이해와 이성적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경험을 앞세워 해결하려고 하면,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문제해결이 잘 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 2) 예루살렘 사도들은 의사결정의 주체에 대하여,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다' 는 말을 합니다. 이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감히 성령과 나란히 놓으려는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공동체적 순종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입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 혼란은 견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공동체적 순종'이라는 차원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도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7 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무장하자 Ⅱ

찬 송 / 376장
암송할 말씀 / 고후 3:6

목상

고린도후서 3:6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1. 당신은 청지기 훈련을 받고 난 후,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
까?
2. 고후 3:6에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시 기 바랍니다. 또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죄인을 구주께로(막 9:17-20)

3. 본문의 줄거리를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시오.
4.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5.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 자신은 어떠했겠습니까?
6. 본문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고 나와야 할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참고 / 롬 3:23)
7.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고 나와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들을 기록해 보시고,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 행동은 무엇입니까?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비늘이 벗겨짐(행 9:18)

8. 본문의 “비늘 같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참고 / 고후 3: 13-15)
9.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기 전과 벗어진 이후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본문에 나오는 “비늘 같은 것”은 어떻게 벗어졌습니까?(참고 / 행 9:17, 고후 3:16)
11. 오늘 우리들의 눈에서 벗어져야 할 비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
12.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을 받아 들이고, 전할 때 나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MEMO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